

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情報活動

<日本> 鐘紡株式會社

同社 工業所有權센터 IBARAKI SINGO

1. 特許情報活動의 經緯

鐘紡株式會社の 경우 特許情報活動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모른다.

다만 以前 蓄積되어 있던(지금은 保管장소의 문제로 處分해 버렸음) 資料에 1947년경부터의 特許公報라든가 조금후의 美國의 오피셜 가제트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戰後 곧바로 이와같은 活動이 미미하지만 開始된 것으로 생각된다.

1950年代에 들어서 同社 事業에 關聯되는 分野의 特許公報는 모두 年度別, 分類別로 製本되어 오피셜 가제트 이외의 外國抄錄類, 例를 들면 英國 Abridgment(特許發明明細書抄錄), 프랑스 BOPI, 西獨特許發明明細書拔萃 등도 特定分野의 것이 蒐集, 蓄積되어 特許部員 및 研究開發擔當者들간의 調查活動에 活用되었다.

그후 더웬트社의 CPI(Central Patents Index) 各種 資料를 導入하고서부터는 오피셜 가제트를 除外한 前記 外國抄錄類의 蒐集을 中止하고 美國 이외의 外國特許情報는 모조리 CPI資料에 의 존하게 되었다.

또한 이와 前後하는 時期에 日本에서도 早期 公開制度가 導入되어 公開特許公報라는 이제까지의 特許公報와는 性格을 달리하는 龐大한 特許情報가 出現하게 되었으며 現實把握의 意義가 높아져 各社들이 종래의 特許情報管理體制를 改編하게 되었으나 同社는 이 時點에서는 종래대로의 管理體制 즉, 侵害調查 등의 遡及調査는

特許部門 主導型, 研究開發着手時的 遡及調査라든가 流通情報把握은 研究開發部門 主導型이라는 分擔制의 特許情報管理體制를 選擇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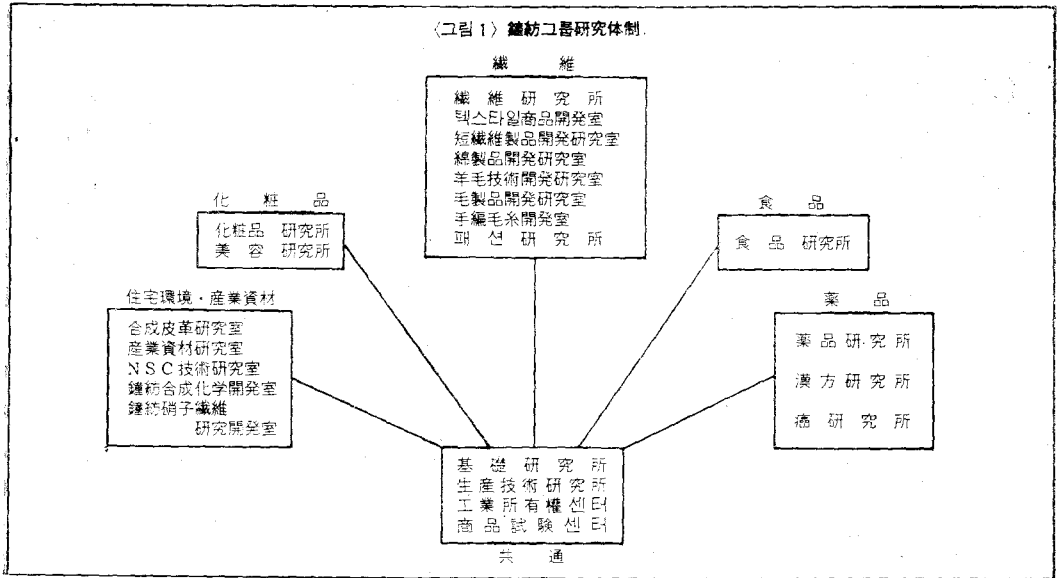
1979년에는 日本에서도 特許情報의 On-line 檢索 서비스가 개시되고 PATOLIS, DIALOG, ORBIT라는 特許情報를 포용하는 시스템에의 接續이 順次로 可能하게 되었으므로 特許部門에 이것을 導入, 特許情報活動에 적극적으로 利用하게 된 결과 特許情報管理體制에 관한 약 10年前의 選擇을 재차 修正할 필요가 생겼다.

즉, 종래 주로 研究開發部門이 分擔해온 研究開發 着手時的 遡及調査라든가 커런트 어웨어니스에 온라인 시스템을 相當히 活用할 수 있다는 것이 判明됨에 따라서 特許部門에서 이들 情報活動까지도 分擔하는 것이 全社의으로 보아 效率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全社의인 特許情報活動을 效率的으로 強化하기 위한 特許部門(同社의 경우 工業所有權센터)에 特許情報 그룹이 곧 設置될 豫定이다.

그리고 蓄積資料의 管理面에서는 1975年代에 들어서 特許部門도 포함한 研究開發部門 全體의 所藏資料 保管場所가 좁아지기 시작하여 그 영향은 점차로 特許資料類에도 미쳐지기 시작하였다.

또 같은 무렵에 大阪府立夕陽丘圖書館이 特許資料類를 充實히 갖추고 開館하기도 하였거니와 蓄積하고 있던 1960年 이후의 特許公報類(公開, 公告特許, 實用新案, 意匠公報, 商標公報, 美國 오피셜 가제트 등)을 모두 마이크로 필름화하였



고 同時에 컴퓨터管理가 가능한 部分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社内 컴퓨터 시스템의 利用을 마음 먹었기 때문에 現在 特許資料管理上의 問題는 상당히 減少되었다고 본다.

2. 特許情報活動現況

同社は「메타곤經營」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纖維」「化粧品」「食品」「藥品」「住宅環境保全·産業資材」 등의 5大事業에 進出해 있으며 그 研究開發體制도 〈그림 1〉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多動 多數의 研究開發事業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全社의인 特許部門인 工業所有權센터에 있어서 全事業場의 研究開發狀況을 細部에 걸쳐서 把握하여 모든 特許情報活動을 遂行하기에는 特許部門에 있어 名專攻分野의 人材를 多數確保해 두고 더우기 全國에 散在해 있는 事業場과 항상 密接하게 情報交換을 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同社의 經營方針上 쉽사리 認定되는 일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研究가 最終段階에 들어서 A號方法(物品)이 거의 決定된 단계에서 實施하는 侵

害調査는 特許部門이 主導的으로 하며(물론 調査分野가 廣範圍에 걸치는 경우는 研究陣으로부터 支援者가 派遣된다) 그 이전 단계의 特許情報活動은 주로 研究開發部門(事業場)에서 實施하도록 하지만 技術內容의 把握이 얼마나 깊이나, 그리고 研究의 進展에 따른 情報의 필요성과 價値의 認識度 따위의 點에서 가장 効率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現在로서도 이런 생각은 크게 달라진 바 없는 듯싶다.

그러나 特許部門, 研究開發部門을 둘러싼 환경의 變化는 급격하고 効率が 높은 研究開發이 強力히 요구되고 있는 한편 특히 日本의 特許情報量의 增加傾向에는 중지시킬 힘이 없다.

이와같은 狀況속에서 登場한 것이 特許情報의 On-line 檢索서비스이다.

同社에서는 一般的으로 研究의 進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3段階의 特許調査가 이루어지고 있다.

第1段階로서는 테마를 具體的으로 設定하기 위한 豫備調査(技術範圍를 大幅조인 動向調査), 第2段階로서는 特定테마의 研究 着手時의 遡及調査, 그리고 第3段階는 研究 完成時 즉, 企業

化的 判斷을 위한 侵害調査이다.

그밖에는 수시로 커렌트 어웨어니스가 實施되고 있다. 여기에 앞서의 On-line 檢索서비스의 導入은 여기 어느 段階에서의 特許調査 가운데 적어도 第1段階의 豫備調査와 隨時로 행해지는 커렌트 어웨어니스의 負擔과 研究者로부터 떼어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第2段階의 遡及調査의 負擔도 輕減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on-line 檢索서비스의 導入에 따라서 同社 特許部門의 特許情報活動은 轉換期에 들어 있으나 앞서 말한대로 同社의 事業場間에 從來부터 特許情報活動의 레벨에 相當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特許部門에 있어서 全社의 特許情報活動을 一元管理한다는 것은 現實的이 아니며 反對로 一部 効率が 低下하는 일은 있을 지라도 各事業場마다 特許情報活動에 대한 特許部門의 比重을 適切히 設定해 두면 特許部門의 情報擔當者를 그리 증가시키지 않고도 全社의으로 보아 研究開發部門의 特許情報活動에 요하는 負擔을 크게 줄일 수가 있으며, 그뿐 아니라 各 研究部門의 特許情報活動의 質을 所望스런 水準 이상으로까지 유지시킬 수 있다는 커다란 利點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에 具體的으로 情報의 蒐集, 蓄積, 配布 및 特許調査의 現狀을 特許部門活動을 中心으로 소개한다.

1) 情報蒐集

日本の 公報類로는 우선 公告公報類로 特許, 實用新案과 함께 同社의 事業이 關聯되는 發行區分으로는 合本公報를, 그 이외의 發行區分에서는 區分別 다이제스트<日本發明資料(株)>를 수집, 또 公開公報는 特許, 實用新案과 함께 大部分의 發行區分을 區分別 다이제스트로 特定分類를 NEW-SDI시트(發明協會)로 蒐集하고 있다.

外國의 公報類는 美國의 오피셜 가제트뿐이다. 그 이외의 外國特許情報로는 CPI(물론 여기에는 日本의 情報도 들어 있음)의 BAJ(Basic Abstracts Journal), Alerting Bulletins, Manual Code Cards 등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日本 및 美國에 대해서는 各種 索引類도 수집, 그밖에 前記 日本 및 外國의 諸情報를 각종 形式으로 編輯한 마이크로필름도 수집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한다.

2) 情報의 蓄積

前項에서 설명한 하드타이프의 수집자료의 大部分은 주로 保管場所의 問題 때문에 수집후 1~2年안에 處分하고 있다.

1979년까지는 日本의 公告公報(特許·實用新案 함께)는 種目單位로 分類別, 年度別로 編輯, 製本을 해왔으나 이런것들은 모두 마이크로 필름으로 代置하고 하드資料는 保管場所 문제로 점차로 處分시켜 가고 있다.

現在 하드資料로 蓄積하고 있는 것은 公開特許의 NEW-SDI시트(메인그룹 單位로 편집, 蓄積), CPI의 Manual Code Cards뿐이다.

다른 情報은 모두 마이크로필름으로 해서 蓄積한다. 마이크로필름의 種類로서는 前記한 公告公報(分類別)의 後續物로서 1980年 이후에는 IPC 서브그룹 單位로 편집한 것을 수집, 축적하고 있다.

다만 侵害調査 따위의 遡及調査에 이용하는데는 多少 上位의 分類概念, 이를테면 메인그룹 내지는 서브그룹單位로 編輯한 것 쪽으로 소망스런 케이스가 많으므로 이 點은 改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밖에 公開, 公告特許(日本)의 番號順明細書, 美國의 오피셜 가제트, CPI의 BAJ도 마이크로 필름으로 蓄積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 필름은 檢索속도, 檢索者의 疲勞度, 하드카피의 鮮明度 등 어느쪽도 問題가 있으며 情報의 蓄積手段으로서는 改善의 餘地가 많다.

광디스크 등이 改良되어 高性能으로 經濟的인 蓄積手段이 되는 것이 기대되는 바이다.

3) 情報의 配布

前記한 바와 같은 同社의 情報活動에 관한 基

本의인 方向(分擔制)이 있기 때문에 日本特許, 實用新案公告公報(合本公報)를 發行區分의 技術內容과 관련된 研究開發部門에 配布하는 外에 要望이 강하게 나오고 또 그 必要性이 높은 事業場을 제외하고 SDI(選擇的情報提供)등은 原則的으로 實施하고 있지 않다.

다만 部分的으로 實施하고 있는 SDI로서는 日本의 公開公報에서 抽出한 것을 NEW-SDI시트, 또한 外國特許는 On-line檢索 結果를 流通시켜서 그 중에서 各 事業場으로부터 特別히 指摘한 重要한 日本의 公開特許, 實用新案에 대해서는 JAPATIC의 워칭서비스를 利用해서 그 후의 審査經過로 監視하고 對應策을 檢討하고 있다.

그런데 研究開發部門에 있어서 커렌트 어웨어니스의 負擔은 非特許情報量도 增大되고 있으므로 해서 점차 커지고 있으며, 全社的인 SDI의 要望은 強力하게 나타나고 있다.

研究開發의 效率面에서 보더라도 今後 特許情報의 SDI서비스는 特許部門의 必須任務로 될 것이다.

4) 特許調査

特許調査는 大別해서 遡及調査와 現狀把握으로 나뉘는데 同社의 경우 먼저 遡及調査는 앞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거의 3種의 性格으로 區別된다.

하나는 테마 設定前의 豫備調査이며, 다른 하나는 研究着手時의 遡及調査이며, 또 다른 하나는 研究完成時의 侵害調査이다. 그리고 첫번째의 豫備調査는 On-line 檢索서비스를 利用해서 內外的 特許調査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日本에 대해서는 公開特許를 對象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段階에서의 調査는 어느 程度 大體的인 技術分野의 動向이 파악되면 그만이기 때문에 별도로 調査가 누락되더라도 할 수 없다.

두번째의 遡及調査는 매우 具體的인 테마가 設定된 段階에서의 調査이므로 慎重을 기해서 實行하고 있다.

研究開發部門에서 分類를 基準으로 매뉴얼 調査가 行하여지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On-line 檢索에 맞는 테마는 特許部門에서 팔로우하고 있다.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는 分類를 상당히 조일 수도 있으므로 이와같은 경우는 日本의 公開特許의 調査에는 PATOLIS On-line List를 利用하는 것도 效率的이다. 세번째의 調査는 거의 研究가 完成되어 企業化로 나가느냐의 與否의 段階에서의 特許調査이므로 特許部門이 主體가 되어 극히 慎重히 行한다.

各國이 賦與하는 分類를 基準으로 分類概念도 매우 上位에 設定해서 日本의 公告特許, 外國에서는 美國特許와 英國特許의 分類別로 編輯된

〈表 1〉

國名	公 報 等	場 所	資料形態	編 集 方 法
日 本	公告實用新案公告特許	社 內 圖 書 館	M F 하 드	分類別(IPC : 서브그룹, JPC : 種目單位)
	公 開 特 許	社 內 圖 書 館	하 드	分類利(IPC : 서브클래스, JPC : 補助類單位)
	公 開 實 用 新 案	圖 書 館	하 드	NEW-SDI시트, 分類別(IPC : 메인그룹單位)
		圖 書 館	하 드	發行區分別
美 國	Official Gazette 特許明細書	社 內 圖 書 館	M F 하 드	Official Gazette본 特許明細書, 分類別(UFC : 클래스單位)
기 타	C P I	社 內	하 드 M F	Manual Code Cards BAJ

(注) 圖書館은 大阪府立夕陽丘圖書館, MF는 마이크로 필름의 略.

資料를 사용해서 權利有效期間內的 것을 調査한다. 이들 이외의 外國特許에 대해서는 日本, 美國, 英國의 調査로 抽出된 問題特許의 對應特許調査(On-line의 Patent Family Service를 사용)를 實施한다.

이상 둘째, 세번째의 調査에 의해 抽出된 問題特許에 대해서는 審査經緯를 調査해서 包袋를 閱覽하고 最終적으로는 原簿를 閱覽하여 問題를 짜 내고자 한다. 그런데 審査經緯情報은 現在 PATOLIS에 의해 그 大部分을 알 수가 있으나 PATOLIS에는 審判의 經緯情報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알고싶은 情報이 On-line Service로서 얻어지지 않는 것이다. 빠른 時期에 PATOLIS에 審判의 經緯情報이 入力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前記 이외의 遡及調査로서 異議申請時라든가 無效審判請求時의 證據를 調査할 수가 있으나 여기에는 On-line檢索서비스를 第1次調査로써 活用하고 있다. 또한 이들 모든 遡及調査의 外部 調査機關(國內, 外國)을 補完적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같은 遡及調査를 위한 特許資料는 社內資料로 利用하지만 社內資料가 거의 마이크로 필름化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大阪府立夕陽丘圖書館의 하드資料를 利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테면 美國의 遡及調査 등은 이 資料의 利用을 前提로한 調査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遡及調査에 대하여 通常적으로 利用하는 資料와 그 利用部分, 蓄積形態를 整理하면 <表 1>과 같다.

여기서는 特許調査 中에서도 주로 遡及調査에 대하여 說明하였으나 키렌트 에웨어니스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주로 研究開發部門에 連結해서 對策을 檢討하는 體制를 擇하고 있다.

단지 問題特許로 看做되는 基準에 特許部門과 研究開發部門간에서는 多少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例가 있으므로 研究開發部門에서 問題特許로 抽出하는 기준은 항상 넓게 設定하도록 指導하고 있다.

이 點에 있어서 特許部門보다 SDI를 流通시키

고 있는 곳에서는 兩部門에서 2重點檢이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例가 극히 적다. 그리고 이 경우 情報量이 적고, 精選된 것이 되려면 研究者側에서도 問題特許의 指摘에 比較的 慎重은 기하기 때문에 좋은 結果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現況把握에는 On-line檢索서비스가 무척 有效하게 活用될 展望이다.

3. 特許情報의 活用

特許情報活動現況에서는 주로 特許部門의 活動을 中心으로 설명하였으므로 特許情報를 權利情報로서 돌리는 面이 강했다.

그러나 前述한 第1段階(技術動向의인 調査) 및 第2段階(研究着手時의 調査)의 特許調査는 研究開發部門에서 實施하거나 또는 特許部門에서 實施하더라도 그 모든 데이터를 研究開發部門에 流通시키고 있으므로 特許情報는 研究推進時의 技術情報源으로 되는 등 물론 技術情報로서도 크게 活用되고 있다.

다만 同社의 경우 어느 쪽의 活用도가 높으나 하면 차라리 權利情報 쪽에서의 活用面이 強한 것은 事實이다.

이밖에 特定技術의 動向을 探知한다거나 特定企業의 開發動向을 調査하기 위한 자료로서 特許情報를 利用하고 있으나 이것은 特許情報의 經營情報로서의 性格을 利用하고 있는 例라 할 것이다.

그런데 特定技術動向이나 企業動向調査는 會社 幹部에의 情報提供으로써 實施하는 곳이 많다. 이밖에 最近에는 新聞, 雜誌의 記事에 對應하는 特許를 調査하고 記事에 소개된 기술의 詳細한 內容이나 權利狀況을 알고자하는 依頼도 많고 特許情報의 活用面은 점차 增大하고 있다.

4. On-line 特許情報檢索 서비스의 活用

1979년에 On-line 檢索서비스를 利用하기 시작

하고서 4년이 되지만 그 동안에 同社 特許部門의 情報管理體制도 커다란 영향을 받으며 자칫하면 出願에서 登錄에 이르는 權利取得活動에 傾注해 왔던 特許部員의 力量이 特許情報活動에도 경주되도록 情報活動은 크게 活性化되었다.

그 原因은 龐大한 情報를 앞에 두고 情報活動에 食傷에 걸렸던 特許부원에 On-line 서비스가 量的處理의 即應性이 풍부한 손 가까이에 眞實을 賦與한 까닭이라 하겠다.

똑같은 경우가 研究開發部門에도 적용됨으로써 效率化를 追求하고 있는 部門에 있어서 많은 勞力을 소비하는 特許情報活動의 負擔이 줄어들며 또한 종전 보다도 더 많은 情報가 얻어지는 수가 있는가 하면 特許部門에 On-line 檢索서비스의 活用을 檢索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와같이 同社의 特許部門에서는 On-line 檢索서비스 導入을 起點으로 特許情報管理體制가 轉換期를 맞은 것이다.

On-line 檢索서비스로서는 PATOLIS, DIALOG, ORBIT, QUESTEL 등의 시스템으로 日本의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 INPADOC, CLAIMS, WPI, INPI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利用하고 있으며 特許分類는 물론이고 各 데이터 베이스 特有의 統制語, 코딩시스템, 그리고 自然語를 능숙하게 活用하면 상당한 精度로 效率 높은 特許調査가 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그 결과 Patent Family 調査나 심사경위조사는 물론이고 主題調査에서도 그 目的이 점차로 상당한 利用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단지 侵害調査 등의 精度의 높이가 요구되는 조사의 경우 On-line 檢索만으로 充分해지면 그렇게까지는 바랄 수 없는 곳에 現在의 On-line의 限界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分野는 極히 變革이 급격한 分野이기 때문에 檢索精度는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러한 分野인 까닭에 급격한 變革을 消化시키고 항상 最新의 서비스를 驅使해서 效率 높고 精度 높은 檢索이 가능한

專門家を 항상 양성해 두는 것이 特許部門으로서는 必須的인 要件이다.

5. 今後的 課題

特許情報에 대해서 同社는 이제까지 集中管理와 分散管理의 折衷型의 管理를 해왔다.

그리고 커다란 문제를 이르기 없이 오늘날까지 이것이다 하는 이 管理方式이 當社의 研究開發部門에 원만한 抵抗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嚴格한 企業環境을 克服해 나가기 위해 研究開發部門도 效率化가 強力히 要求되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特許部門에는 On-line 檢索시스템이라는 有力한 길이 나타나 이것을 核으로 研究者의 負擔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特許部門에 있어서 情報管理體制의 強化를 試圖해 가고 있다.

工業社會의 다음에는 情報化社會가 온다고 하지만 그 一端을 나타내는 記事가 新聞紙上을 부지런히 오르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特許分野에서도 美·日兩國 特許廳의 Paperless 計劃이 發表되어 있고 CAS ON LINE이나 DARC와 같은 化合物檢索시스템 및 혹은 그 이상의 精度 높은 特許情報시스템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같은 시스템이 등장하였을 때 特許情報活動에 있어서 自社의 優位性을 어디서 追求하면 좋겠는가? 이것은 비단 同社에 局限된 문제만이 아니라 特許權을 武裝삼아 市場을 占領 하겠다고 나서는 모든 企業들이 풀어야 할 課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것은 先進後進을 막론한 모든 企業의 經營戰略上的 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現狀의 特許情報管理體制의 強化를 시도해 가면서 特許情報 擔當者로서는 이 分野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먼저 豫想되는 커다란 變革에의 對應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